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 단청문양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혜 연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 단청문양 중심으로 -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혜 연

# 인 준 서

김혜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오늘날 정보화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각종 정보매체와 인터넷 사용이 대중에게 보편화 되어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디자인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다.

여러 정보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건축, 미술, 복식과 메이크업 분야, 바디페인팅 등 여러 미용분야 또한 많은 발전을 하였고, 미적 표현의 방법 또한 다양하게 확대 되었다.

대중들은 미적표현에 있어 개성화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본질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을 추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기존형식의 스타일을 해체하거나 거부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해체주의의 개념 및 형성 배경을 파악하고,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 중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나누어 우리나라 단청 문양과 색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해체주의 탈현상에 접목시켜 단청의 기본문양을 분류하여 그 중에 기하문, 길상문, 식물문, 자연문으로 총 8점의 바디페인팅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탈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구성은 단순한 변형 과정이 아니라 외적 해체 과정에서 이탈과정을 겪으며, 통일성과 전체성의 개념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탈구성은 바디페인팅과 메이크업에서 분해, 삭제, 과장의 방식을 이용해 디자인 하였으며, 헤어에서는 변형, 비대칭, 불균형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탈중심의 논리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었던 것, 주변적이거나 사소한 것, 타자에 대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기존 가치와 양식을 붕괴, 해체 하여 제 3의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불연속은 전통적 디자인에서 구축해왔던 이미지로부터 연속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진행하여 연속성은 ‘틀’로서 설명된다. 행위와 시간이 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규정하고 시간의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한 한 형태적인 조작을 통해 동질적인 틀의 혼합, 중첩, 왜곡, 용해, 반복, 우연, 삽입으로 분류되어진다.

넷째, 분열과 붕괴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한 디자인 양식이다. 의도적으로 형태를 쪼개거나 부수면서 탈현상의 기본 형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작품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중 가장 해체주의의 특징이 잘 들어난 탈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양과 색채를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은 탈구성의 삭제를 단청문양인 기하문의 장침을 선정하여 기존의 형태를 삭제시켜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탈구성의 과장을 응용하여 단청문양의 길상문인 복(福)을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탈중심의 붕괴를 단청문양의 기하문인 태극무늬에 접목시켜 기존의 오방간색을 응용하여 색을 표현하고 태극무늬의 굴곡을 거칠게 표현하고 자 석고를 오브제화 하여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탈중심의 해체를 식물문의 모란무늬로 제작하여 모란의 잎을 해체시켜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는 불연속의 중첩을 선정하여 기하문의 삼각형 모양을 각각 다른 크기로 잘라 오브제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I은 불연속의 혼합으로 길상문의 복(福)을 사슴의 뿔과 사람의 형태로 나누어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II은 분열의 형태로 식물문 중 연꽃무늬에 응용하여 형태를 쪼개어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III은 붕괴의 부수는 방법을 응용하여 자연문 중 파도무늬를 접목시켜 에어브러시 기법과 오브제의 기법을 사용해 작품 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디자인을 거부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상황에 맞게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양과 색채를 해체주의에 접목시켜 새롭게 디자인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작품 제작 등으로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영향을 받아 해체주의와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다양한 미용분야에서도 해체주의와 전통문양을 연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해체주의	3
2. 한국전통 단청문양	13
3. 바디아트	20
III. 탈현상	27
1. 탈구성	29
2. 탈중심	32
3. 불연속	34
4. 분열과 붕괴	37
IV. 작품제작	41
V. 결론	68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은행의 상징 .....	15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서 .....	43
<표 3>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	45
<표 4>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	48
<표 5>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	51
<표 6>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	54
<표 7>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	57
<표 8>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	60
<표 9> 작품 VII - 디자인 이미지 .....	63
<표 10> 작품 VIII - 디자인 이미지 .....	66

## 그림 목 차

<그림 1> 오행과 오방색 .....	14
<그림 2> 번개무늬(뇌문) .....	18
<그림 3> 구름무늬 .....	18
<그림 4> 파도무늬 .....	18
<그림 5> 해남 미황사 대웅전 , 연화문 .....	18
<그림 6>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모란문 .....	19
<그림 7> 경북궁 함원전, 길상문 .....	19
<그림 8> 김천 직지사 대웅전, 동물문 .....	19
<그림 9> 장침 .....	19
<그림 10> 회화적 기법 .....	25
<그림 11> 에어브러시 기법 1 .....	25
<그림 12> 에어브러시 기법 2 .....	25
<그림 13> 오브제 기법 1 .....	26
<그림 14> 오브제 기법 2 .....	26
<그림 15> UV 발광 효과 기법 1 .....	26
<그림 16> UV 발광 효과 기법 2 .....	26
<그림 17> 공작 .....	31
<그림 18> 눈 .....	31
<그림 19> CHANEL 패션쇼 .....	31
<그림 20> John galliano 패션쇼 .....	31
<그림 21> Eyeshadow and lipsticks .....	33
<그림 22> 신기한 바디페인팅 .....	33
<그림 23> 정원 .....	36
<그림 24> 동물 .....	36

<그림 25> 수도 .....	36
<그림 26> 선과 악 .....	36
<그림 27> 하늘과 바다 .....	39
<그림 28> 붕괴 .....	39
<그림 29> 곤충 .....	39
<그림 30> 석고 페인팅 .....	39
<그림 31> 작품 I .....	46
<그림 32> 작품 II .....	49
<그림 33> 작품 III .....	52
<그림 34> 작품 IV .....	55
<그림 35> 작품 V .....	58
<그림 36> 작품 VI .....	61
<그림 37> 작품 VII .....	64
<그림 38> 작품 VIII .....	67

# I. 서론

현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적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본질의 형태를 보존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해체주의는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에 의하여 대두되기 시작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건축과 예술, 패션, 미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모든 형식을 파괴, 분해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재창조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오늘날 대중들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가 되기 시작하였다.

오늘 날 점차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해체주의에 접목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 중 탈현상을 중심으로 단청의 기본문양을 분류하여 기하문, 길상문, 식물문, 자연문으로 총 8점의 바디페인팅을 제작하고 기존의 형태를 파괴, 해체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의 개념 및 특징과 단청의 기본문양에 이론적인 고찰을 위하여 관련 전문서적과 국·내외 단행본 및 학위논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알아본다.

둘째, 해체주의를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불확정성으로 분석한다.

셋째, 해체주의를 등장시킨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징 중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한다.

넷째, 해체주의 탈현상을 단청의 기본문양과 색채를 이용하여 바디페인팅을

통해 작품제작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과 색채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미를 유지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먼저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기존의 형태를 해체주의 특징에 접목시켜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바디페인팅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특징 중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나누어 전통문양과 색채를 응용하여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해체주의

#### 1) 해체주의 개념 및 형성배경

해체주의란 형이상학 중심의 서양 철학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통해 전통적인 이분법적 이론을 해체시키고 기존의 모든 믿음이 허구임을 밝히려는 사상으로 주로 언어학과 문학에서 구조주의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등장한 포스트 구조주의에 속하는 구체적인 철학 이론으로<sup>1)</sup> 해체주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이론적 갈등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아이디어이다.<sup>2)</sup>

해체는 본래 기존의 구조에 대하여 다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가치를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허공에 매단 상태를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sup>3)</sup> 또 원전의 바탕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전제가 무엇이며 작가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맹점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가는 행위를 의미한다.<sup>4)</sup>

해체주의는 아무리 용어 자체가 해체라는 말을 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체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sup>5)</sup>고 볼 수 있으며,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며,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을 설득력 있는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예술과 건축에 관한 개념이었던 ‘구

---

1) 권진영(2010), “패션 트렌드 컬러와 해체주의 패션 컬러의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 Peter Noever, 오덕조(역)(1996), 「Architecture in Transition」, 청람출판사, p.11.  
3)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p.372.  
4) Peter Noever, 오덕조(역)(1996), 앞의책, p.16.  
5) Christopher Norris & Andrew Benjamin, 오덕조(역)(1996), 「“What is Deconstruction?”」, 청람출판사, p.53.

성주의 이론'이 20세기 예술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매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다.<sup>6)</sup>

서구의 형이상학 체계는 본래 플라톤(Plato)의 존재적 이원론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지각 가능한 가변적인 현상계와 이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물질세계를 가리키는 관념계로 분류하고, 현상계를 그 원형적 존재인 초월적인 관념계를 모방하는 일종의 님은 꼴, 혹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되었다.<sup>7)</sup>

'해체'는 일반적으로 분쇄함, 몰락, 파괴, 분쇄, 멸망, 공격, 폭력, 단절, 분절, 파편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철학적 측면에서 1960년대 프랑스를 기점으로 등장한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비판하는 포스트구조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에 대한 외면화, 이론화 및 방법론적으로 세련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8)</sup>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사상 중 하나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앙투아네트 푸크(Antoinette Fouque)나 자크 라캉(Jacques Lacan) 또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같은 이론가보다는 주로 자크 데리다와 관련한 이론으로 보는 편이 훨씬 더 적절하다.<sup>9)</sup>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인문학의 예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와 기호, 그리고 유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해체주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였다. 해체주의는 양차 대전의 위기상황 속에서 프랑스 철학이 당시에 직면한 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운동 혹은 사고유형의 결과<sup>10)</sup>라고 할 수 있다.

6) Peter Noever, 오덕조(역)(1996), 앞의책, p.11.

7) 서희선(2006),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8)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9) 김옥동(1998), 「전환기의 비평논리」, 현암사, p.84.

10) 김민진(2005),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근에 이러한 종래의 서구 철학이 지닌 현전의 형이상학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에 의해 대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의 사상은 소위 ‘해체주의’ 철학으로 수많은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오늘날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sup>11)</sup>

이성 중심적 사유체계가 중국에 이르러 인식론적 모순에 봉착할 것이며 이러한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모순은 회의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구 철학사에 지속되어 온 사유방식, 즉 형이상학과 인식론적 사고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sup>12)</sup>

구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세계를 재현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에 의하여 복잡하게 형성되어 좌우된다고 보았고,<sup>13)</sup> 구조주의 언어학자들, 소쉬르, 앙드레 마르티네(André Martinet 1908~1999), 루이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 1899~1965)까지 언어학 연구 대상은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문자임을 자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형이상학적 틀이라는 사슬에 묶여, 그들이 인지 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학을 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자크 데리다의 말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성립배경을 통해 등장한 해체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를 창조시키기 위해 등장되었으며,<sup>15)</sup>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순수예술 뿐 아니라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1) 이광래(1989), 앞의책, p.166.

12)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제 18권, 제 1호, p.490.

13)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4) Jacques Derrida, 김보현(역)(1996), 「해체」, 문예출판사, p.15.

15) 김경인(2007),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3권, 제 2호, p.732.

## 2)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해체주의 개념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 역전을 위한 전술과 힘을 오래된 구조로부터 차용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빌려오는 것으로 이것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란 ‘현전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요 공격목표는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조를 만들어 내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특성을 지니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sup>17)</sup>

자크 데리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텍스트 주변의 의미를 끄집어내고자 했으며, 자크 데리다 철학의 두 가지 성과는 새로운 사유의 논리 이론 개발과 텍스트 이론으로써,<sup>18)</sup>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에 의해 나타나 그 동안의 경직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파괴가 아닌 해체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었으며 20세기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 사회, 예술분야에 고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19)</sup> 또한 건축, 문학, 복식, 영화, 음악 등에서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면서 광범위하게 발전시켰다.<sup>20)</sup>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구조주의의 사상 중 하나로서 서구 형이상학 근본에 대한 비판을 가한 철학 이론이며, 이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이다.<sup>21)</sup>

---

16) 이광래(1989), 앞의책, p.373.

17) 이수인(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 주의적 표현 양식”,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6호, p.944.

18) 이수인(1999), 위의책

19)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20)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21) 이소령(2006), “현대 데님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해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는 ‘해체는 단 한 가지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써 이제까지 철학사의 전통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을 거부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고의 과정에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본질적인 것과 더불어 본질적인 것의 표현을 찾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언어, 해석, 철학상의 개념이라 하겠다.<sup>22)</sup>

그는 니체의 물이성적, 반이성적 영역을 찬성하면서 하이데거, 푸코의 계보를 이어받은 해체주의자로서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동일성, 주체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판하였다.<sup>23)</sup>

자크 데리다는 전통 서양철학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통하여 서양철학의 전통 하에서 모든 믿음들이 허구임을 밝히려 하였고, 그러한 비판의 전개를 위한 접근 방식으로 제기된 일반적인 전략이 바로 해체의 방법이다.<sup>24)</sup>

자크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모든 것의 우위를 역전시키고 언어와 기호의 재현성, 로고스와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이다.<sup>25)</sup>

자크 데리다의 목표는 이론의 한계에 대항해 지식이론에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비평적 논의를 과생시키는데 있다. 그의 예술에 대한 작업은 이론과 예술사이의 운동 또는 통로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허용하고 그것들을 분리시키고 연결시키는 준거 틀의 견지에서 각자의 것을 재고하게 하고 이론과 예술 모두를 원활히 유통시키는데 있다.<sup>26)</sup>

그러나 소쉬르를 중심으로 발달한 언어학과 기호학, 구조주의 이론은 탈구조주의를 거치면서 기존의 질서와 관념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

---

p.32.

22) 조선희, 서경희(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산업기술연구원, p.70.

23) 마단 사립, 인현규(역)(1991),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 인간사랑, p.58.

24) 박연주(1994), “매니쉬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25) 권진영(2010), 앞의책, p.7.

26) 김민수(1994), 「모던 디자인의 비평」, 안그라픽스, p.214.

한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나타난 ‘해체’는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건축’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 내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27)</sup>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이상들에 대한 자크 데리다의 긍정으로 인해, 진보 또한 새로운 지위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의 많은 후기 저작에서 자크 데리다는 법적 개선과 완전화라는 개념에 대해, 즉 진보가 무단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28)</sup>

해체주의 개념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김경인<sup>29)</sup>, 박수진<sup>30)</sup>은 미용분야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적 특성을 상호텍스트성, 차연, 탈중심, 탈현상, 불연속과 분열붕괴로 살펴보았으며, 이소령<sup>31)</sup>, 윤숙원<sup>32)</sup>은 의상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적 특성을 차연,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Dis-De로 살펴보았으며, 최진희<sup>33)</sup>, 조경영<sup>34)</sup>는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적 특성을 탈구성적, 탈중력성, 중첩성, 형태의 유희,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불확정성의 4가지로 분류하여 해체주의 개념적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7) 윤재은(2006),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 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0-31.

28) Penelope Deutscher, 변성찬(역)(2006), 「How to read Derrida」, 웅진지식하우스, p.190.

29) 김경인(2007), 앞의책

30) 박수진(2012),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이소령(2006), 앞의책

32) 윤숙원(2010), 앞의책

33) 최진희(2008),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 22권, 제 1호

34) 조경영(2009), “데리다의 차연적 관점에서 본 해체주의 건축의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 차연

차연이란 데리다가 만든 신조어으로써 ‘Difference’라는 단어를 같은 발음인 ‘Differance’로 e를 a로 바꾸어 만든 단어이다. 이것은 현전성의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인 ‘Differe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를 포함한 명사형이다.<sup>35)</sup>

자크 데리다의 해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는 차연은 ‘간격 두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리고 어떠한 기호도 자기 폐쇄적인 동일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분화를 가리키는 자크 데리다의 신조어다.<sup>36)</sup>

데리다에 의하면 차연의 논리는 현전과 부재와 같은 근원적인 요소들의 상호대립관계의 배제로서 어떠한 요소도 단순히 현존하지 않는 다른 요소와 관계하지 않고는 하나의 기호로서 가능할 수 없으며, 각각의 요소는 내적으로 다른 요소들의 흔적과 연관되어 구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37)</sup>

차연은 누군가 특정한 용어에 귀속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동일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지연이며,<sup>38)</sup> 차연은 ‘현전’을 설명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분할하는데 그 간격을 시간의 공간화, 공간의 시간화 라고 부른다.<sup>39)</sup>

언어에 있어 기호(말)의 기원(말이 지시하는 대상)과 끝(의미)을 연결 하는 동종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고 단지 기호를 하나의 아무런 의미 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기호가 결합하고 있는 기의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부각 시킴으로써 구조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탈구조주의를 주장했다.<sup>40)</sup>

## (2) 상호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

---

35) 방수진(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36) Penelope Deutscher, 변성찬(역)(2006), 앞의책, p.64.

37) 이종무(1993), “해체건축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38) Penelope Deutscher, 변성찬(역)(2006), 앞의책, p.56.

39) 이광래(1989), 앞의책, p.379.

40) 이태동(1990), “데리다와 해체주의”, 서강영문학, 2권, p.4.

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예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sup>41)</sup>

텍스트란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 기호학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인 문헌 곳의 글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이러한 일정한 주체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텍스트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 이전에 존재해 있던 텍스트로부터 어떠한 요소를 취하는 것<sup>42)</sup>으로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sup>43)</sup>

상호텍스트성은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형이상학적 관념 하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통용되던 것들이 차연의 유희과정을 거쳐 상호 교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p>44)</sup>

자크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해체가 바탕이 되어서 주체에서 타자의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인종, 성별, 계급, 제도, 가부장적 구조의 해체, 정신에서 신체로, 정착에서 유목으로 등과 같은 변화들은 해체주의의 핵심적 명제인 탈 중심화적인 ‘이원적 대립의 해체’였음을 볼 수 있다.<sup>45)</sup>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의 텍스트론에 의하면, 텍스트는 직물을 뜻하는데, 생산성이 강조되는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상호 텍스트 등이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즉, 상호 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며 상호언급, 병행인용<sup>46)</sup>,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sup>47)</sup>

---

41) 김원갑(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8-199.

42) 김동욱(1991),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p.204.

43) 이광래(1989), 앞의책, p.125.

44)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5.

45) 오세권(2004),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

46) 병행인용이란, 두 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두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창조함으로써 이분법을 해체하고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

### (3) 탈현상

탈현상은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안전성을 부정하며,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 재구성하여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며,<sup>48)</sup> 예술에서 구성요소의 생략, 파편화를 통해 기하학적 구성을 무시하고 불확정적 형태를 추구한다.<sup>49)</sup>

해체는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즉, 탈현상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여<sup>50)</sup> 닫힌 체계 내에서 지배받는 대상물을 거부하고 시간과 공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sup>51)</sup>

탈구성은 분해·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경제적 혹은 기술적·실용적 관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변위나 간격을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sup>52)</sup>

탈현상의 표현적 특성에 대한 선행논문으로 노미정<sup>53)</sup>, 이소령<sup>54)</sup>, 윤숙원<sup>55)</sup>은 의상에서 나타난 탈현상의 표현적 특성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구분하였으며, 방수진<sup>56)</sup>, 박수진<sup>57)</sup>은 미용분야에서 나타난 탈현상의 표

---

미 유표를 유도하고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47) John Lewelyn, 서우식·김세중(역)(1988),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p.102.

48) 김주현(1990),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9)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50) 김주현 외(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p.83.

51) 윤숙원(2010), 앞의책, p.53.

52) 임광숙(1997),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2.

53) 노미정(2005), “해체주의적 의상이 영화 속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 이소령(2006), 앞의책

55) 윤숙원(2010), 앞의책

56) 방수진(2007), “자크데리다 해체주의적 개념에 의한 현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3권, 제 3호

현적 특성을 탈구성, 탈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탈현상의 표현적 특성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구분하였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분해하고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작품 제작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탈현상을 제 III장에서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구분하였다.

#### (4) 불확정성

자크 데리다는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체계의 불확정성을 제시한다. 즉,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8)</sup>

텍스트의 통일성 및 진실성을 저해하는 모순들 혹은 이중적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텍스트의 의미란 본질적으로 결정 불가능하다고 한다.<sup>59)</sup>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려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 자취, 또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sup>60)</sup>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하여 텍스트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현존할 수 없으므로 의미는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된다는 것이다.<sup>61)</sup>

---

57) 박수진(2012), 앞의책

58)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p.217.

59) 이광래(1989), 앞의책, p.127.

60) 김성곤(1988), 앞의책, p.217.

61) 조선희, 서경희(2003), 앞의책, p.72.

### 3. 한국전통 단청문양

#### 1) 단청의 정의 및 색채

단청이란 넓은 의미에서 건축이나 사물 등에 시행하는 모든 채화 행위를 의미한다.<sup>62)</sup> 단청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와 조화에 국한되는 말이다. 그러나 명사적 의미에서 ‘단청’이란 각종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도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sup>63)</sup>, 황색·적색·녹색·청색 및 백색과 흑색 기타 여러 색을 써서 집의 벽, 기둥, 천장 같은 건축 가구부재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놓은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으나,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조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하는 것과 서, 회, 화의 개념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sup>64)</sup>

무늬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되는 문양의 반복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문양과 무늬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즉 사전적 의미에서는 “무늬란 장식의 목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형상으로 점, 선, 면, 색의 구성 또는 그들의 질서 있는 배열로 이루어지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 모든 분야에 걸친다.” 라고 표현되어있다.<sup>65)</sup>

단청은 발생 초기에는 특정한 색을 통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의도의 표현이기도 했으며 나쁜 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사의 목적이 있었다.<sup>66)</sup>

단청 문양에 사용된 색은 대체로 짙고 강한 느낌의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또한 단청의 색채는 한국인의 의식 세계의 중심이었던 음양 오행적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의 이치에 따

62) 박민선(2008), “한국사찰단청 머리초양식에 관한 연구 - 17, 18세기 지역별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63) 광동해(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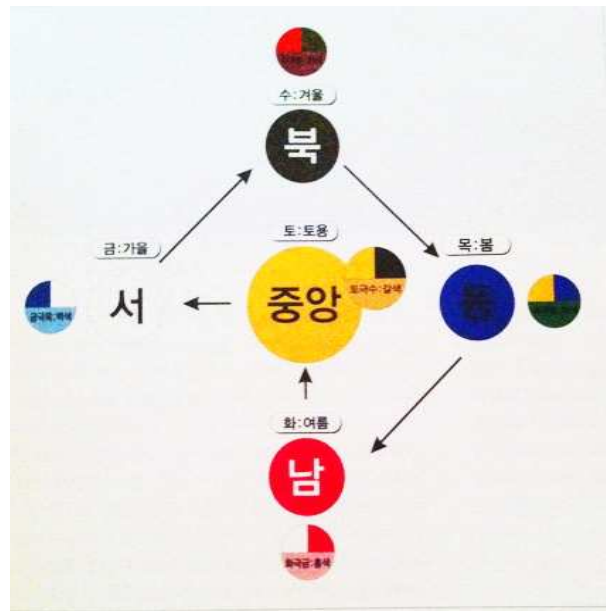
64) 임영주(1991), 「단청」, 대원사, p.14.

65) 두산세계백과사전연구소(1996), 두산세계백과사전, p.469.

66) 김희정(2012), 「한국 단청의 이해」, 한티미디어, p.4.

랐다.67) 단청의 색채는 “적, 황, 청, 흑, 백색의 다섯 가지 색채 배합으로 구성되며, 단청은 음양오행설, 사신사상 같은 정신적인 의미와 내용을 지니며, 생활 공예품에서 조각,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에 이용되었지만 특히 목조건축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68)

음양오행론에 따르면 오행에 부합하는 상생색과 상극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생의 관계는 정색이 되고 상극의 관계는 간색이 된다. 정색은 동방에 청색, 남방에 적색, 중앙에 황색, 서방에 백색, 북방에 흑색이 있다. 간색은 동방에 녹색, 서방에 벽색, 남방에 홍색, 중앙에 유향색이며 북방에 자색이 있다(그림 1).69)



<그림 1> 오행과 오방색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2012, p. 15)

67) 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p.31.

68) 추신영(2007), “단청문양을 활용한 전통미술지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69) 김희정(2012), 앞의책, p.14.

<표 1>에서 오색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 방위, 계절, 오상, 신수 등과 결합해 색채의 사용에 있어 우주의 원리에 부합하고자 하는 색채관이 성립하게 된다.<sup>70)</sup>

<표 1> 오행의 상징

오방정 색	오방간 색	방위	오행	오상	신수	계절
청색	녹색	동	목	인	청룡	봄
적색	홍색	남	화	예	주작	여름
황색	유황색	중앙	토	신	인황	늦여름
백색	벽색	서	금	의	백호	가을
흑색	자색	북	수	지	현무	겨울

오행설에 근거한 오방색의 원리는 화행은 불이고, 적색을 나타내며 목행은 초목으로 푸른색을 나타낸다. 토행은 땅이 누런색이기 때문에 황색 금행은 쇠가 빛을 발할 때 하얀색이기 때문에 흰색이며 수행은 청색을 나타내며 물이 모이면 검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흑색이라고 한다.<sup>71)</sup>

우리나라에서의 실생활에 사용된 오방색의 사례를 살펴보면, 벽사를 상징하는 청색과 적색은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흥례 시에는 백색과 흑색을 사용하였다. 오색을 전부 사용하여 화와 흥을 막고 길과 복을 비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sup>72)</sup>

음양오행에 의한 오채의 사용은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순리이고 복된 것이라고 믿는 관념적인 색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색상의 사용은 법칙성을 가지며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sup>73)</sup>

70) 위의책

71) 임영주, 전한호(2007), 「우리나라단청 I」, 태학원, p.263.

72) 박수희(2001), “전통정신사상과 복식색의 치료효과와의 연관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 2) 단청문양의 종류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은 추상적인 기하문양에서부터 사실적인 동, 식물문양, 자연문양, 인물문양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조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sup>74)</sup>

문양은 그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 짐승, 조류, 어패류, 곤충, 양서류, 식물, 광물, 기물, 기하문양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의미하는 바에 따라 자연현상, 길상 벽사, 다산 기자, 수복 장수, 공명 출세, 부귀 유여, 부부 화합, 가내 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75)</sup>

단청은 목조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격식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청의 조형양식은 건축물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각 부재에 장엄되는 문양의 밀도도 구분된다.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개인 주택의 단청을 금하였고, 궁궐·사찰·서원 등에도 건물의 품격과 성격에 따라 단청의 무늬나 채색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단청의 기본 문양은 시대·지역·장인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 단청문양의 기본 요소는 고대부터 전해지는 주술, 종교, 토속적인 각종 상서로운 문양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 고분에 나타나는 구름무늬나, 당초무늬, 연화무늬 등은 후대에도 즐겨 쓰고 있으며,<sup>77)</sup> 단청의 기본무늬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주축을 이루는 기하무늬, 구름당초, 인동당초 등의 당초무늬, 해, 달, 구름 등의 자연무늬, 각종 수목과 꽃을 그린 식물무늬, 용, 봉황 등의 동물무늬, 불상, 보살 등의 종교무늬, 수복, 칠보 등 인간의 길복을 기원, 상징하는 길상무늬 등 다양하다.<sup>78)</sup>

문양은 처음부터 장식의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

73) 김희정(2012), 앞의책, p.16.

74) 채송하(2006), “전통 문양을 응용한 생활한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75) 허균(2007), 「전통문양」, 대원사, p.20.

76) 한석성(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단청」, 현암사, p.147.

77) 위의책, p.177.

78) 위의책

나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서 분만 아니라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매개적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79)</sup>

이와 같이 단청 문양의 대상은 모든 사물을 총망라해 매우 다양하다.<sup>80)</sup>

본 연구에서는 단청의 기본 무늬를 기하무늬, 당초무늬, 자연무늬, 식물무늬, 종교무늬, 길상무늬, 동물무늬로 구분하였으며, 기하무늬를 원, 삼각형, 오각형, 팔각형, 뇌문(그림2), 태극, 나선형, 격자, 만, 아, 삼원, 골팽이, 직선으로 구분하였고, 당초무늬를 구름당초, 인동당초, 포도당초, 싸리당초, 국화당초, 보상당초로 구분하였다. 자연무늬에서는 해, 달, 별, 구름(그림3), 화염, 파도(그림4), 기암, 산수, 십장생 등으로 구분하고, 식물무늬에서는 연화(그림5), 모란(그림6), 소나무, 대나무, 난, 석류, 감쪽지, 영지, 불로초, 각종 수목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종교무늬에서는 불상, 보살, 선인, 비천, 12지신상, 성상, 불패, 귀면, 가룽빈가로 구분하였으며, 길상무늬에서는 수복, 강녕, 희(그림7), 부귀, 칠보로 나누었다. 동물무늬에서는 용(그림8), 봉황, 거북, 기린, 주작, 사자, 코끼리, 범, 박쥐, 나비, 잉어, 곤충, 물고기, 각종 금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기하문을 장침(그림9), 태극무늬, 삼각형으로 나누어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표현하였으며, 길상문을 복(福)자로 표현 하였고, 식물문을 모란무늬와 연꽃무늬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문 중에 파도무늬를 선택하여 총 8점의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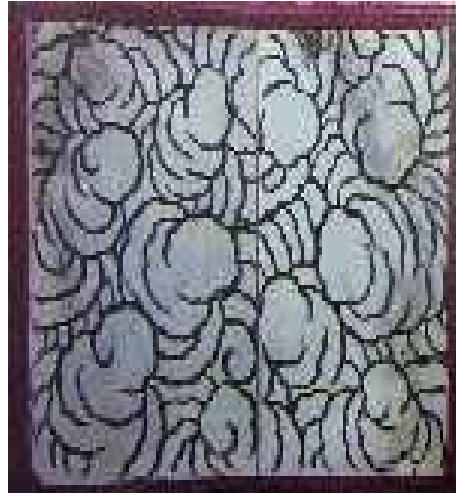
---

79) 김향리(2003), “전통 문양을 이용한 표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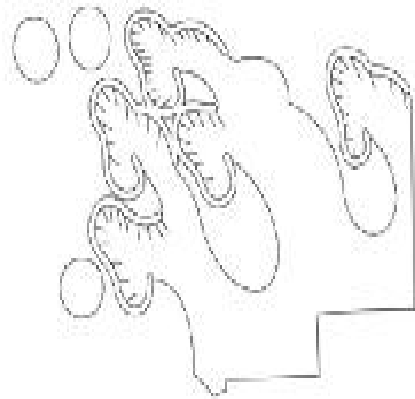
80) 곽동해(2002), 앞의책, p.176.



<그림 2> 번개무늬(뇌문)  
 (출처: 광동해, 단청장, 2002, p.103)



<그림 3> 구름무늬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2002, p.147)



<그림 4> 파도무늬  
 (출처: terms.naver.com  
 /entry.nhn?cid=3956&docId=1683611  
 &categoryId=4064, 검색일자: 2013.  
 05.25.)



<그림 5> 해남 미황사 대웅전 ,  
 연화문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2012,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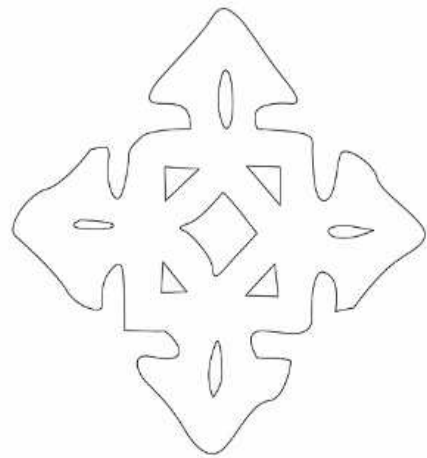
<그림 6>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모란문, 2012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p.139)



<그림 7> 경복궁 함원전  
길상문, 2012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p.146)



<그림 8> 김천 직지사 대웅전  
동물문, 2012  
(출처: 김희정, 한국 단청의 이해, p.141)



<그림 9> 장침  
(출처: [terms.naver.com/entry.nhn?cid=3956&docId=1679761&mobile&categoryId=4054](https://terms.naver.com/entry.nhn?cid=3956&docId=1679761&mobile&categoryId=4054), 검색일자: 2013.06.18.)

## 4. 바디아트

### 1) 바디아트 정의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것으로,<sup>81)</sup> 신체를 새롭게 만드는 헤어드레싱, 패션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며 그것은 장식품과 장식물을 달기 위한 피어싱, 영구적인 문신, 브랜딩, 상처 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페인팅이나 염색을 의미한다.<sup>82)</sup>

바디아트는 문명의 여명에서 시작되어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오다가 1966년 아트 디렉터인 마틴 리트(Martin Ritt, 1914~1990)에 의해 새롭게 현대적 미술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sup>83)</sup> 바디아트는 인간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인류가 살아가며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 중 하나이며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주위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 또는 위협의 대응수단으로 원시적인 바디 페인팅이 행해지게 되는데,<sup>84)</sup> 신체를 이용한 일부 형식들과 신체를 표현의 매체나 주제문제로 다루는 작업을 통칭한다.<sup>85)</sup>

이러한 경향을 미술사적 관점에서는 개념미술로 분류하면서 신체를 캔버스화하여 재료로서 사용하는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단순한 칠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신체장식에서 진보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86)</sup>

바디아트 중 바디 페인팅과 타투는 3차원의 동적인 형태 내지는 이미지의

---

81) 강대영(1999),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p.255.

82) Encarta World English Dictionary [North American Edition] © & (P) 200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for Microsoft by Bloomsbury Publishing Plc.

83) 강민정(2006),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 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84) 강대영(1999), 앞의책, p.255.

85) 하경호(1992), “신체예술과 그 개념의 확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86) 이유나(2011), “시뮬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연속체로 보여 지며, 쇼(Show)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의상과의 조화를 피하거나 그 의상과 장식되는 소품에까지 바디아트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한다.<sup>87)</sup> 이렇듯 바디 아트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에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모델과 관객, 작가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라<sup>88)</sup> 할 수 있다.

## 2) 바디아트 표현기법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점, 선, 면, 색 등의 적절한 사용이다.<sup>89)</sup> 본 연구에서는 바디아트의 표현기법을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으로 나누어 바디아트로 작품 제작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 (1) 회화적 기법

회화적 기법은 인체를 캔버스 삼아 기교나 형식 등의 테크닉에 의존하지 않고 일종의 정서가 반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문양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90)</sup> 회화적 기법은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켜 주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밀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는 회화적 페인팅 기법과 우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위해 물감을 던지고 흘리고 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액션 페인팅 기법이 있다.<sup>91)</sup>

회화적 기법에서 대표적인 주제로는 우주 공간, 태양, 꽃, 동물, 바다 속, 인물 등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sup>92)</sup> 회화적 기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

87) 문정은(2002),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88) 박보영 외(2002), 「Make-up Art」, 청구문화사, p.206.

89) 광주영(2010),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90) 박정은(2012), “에드바르트 뭉크의 회화적 모티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91)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한언, p.16.

92) 이영애 외(2000),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p.54.

<그림 10>에서는 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화적 기법을 응용한 작품이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하늘과 바다의 느낌을 여성의 바디에 표현하였으며, 회화적 기법에서 대표적인 주제를 표현하였다.

모델바디에 표현되어있는 작품을 선명하게 표현하고자 배경의 색을 어둡게 표현하였다.

## (2)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표현기법은 에어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압축한 공기로 물감을 뿜어내어 원하는 부분을 채색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에어브러시가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40년대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sup>93)</sup>

에어브러시 기법은 압축한 공기가 컴프레셔와 에어건을 연결하여 액체 상태의 물감을 압력으로 밀어내서 분사시키는 스프레이 형식의 채색방법으로 부드러운 표현이나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채를 자유자재로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압력의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빠른 시간에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에어브러시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바디페인팅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네일아트의 표현까지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쇄제판이 수정과 음화 및 양화사진의 수정 등에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현대 회화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94)</sup>

<그림 11>은 가을 낙엽을 표현한 작품이며, 붓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색감을 자연스럽게 에어브러시를 사용해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을의 느낌을 주기 위해 브라운계열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헤어에는 낙엽을 응용해 디자인한 작품이다.

93) 김공몽(1991), 「Airbrush Illustrations」, 조형사, p.140.

94) 위의 책

브러시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에어브러시의 사용으로 색감을 선명하게 표현하여 또렷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그리기 어려운 부분을 스텐실로 작업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그림 12)

### (3) 오브제 기법

바디페인팅에는 물감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표현 기법이 있다. 오브제 활용 기법은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물감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 이외에 레이스, 깃털, 직물, 반짝이, 꽃 등을 이용한다.<sup>95)</sup>

인체에 접촉하여 표현해야 하므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자연 재료와 인공 재료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재료로는 식물, 머드, 석고, 깃털 등이 있으며, 인공 재료로는 레이스나 비즈, 패브릭, 종이, 금속 플라스틱이나 스톤 및 공산품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sup>96)</sup> 바디아트에서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에서도 많이 응용하는 기법으로 인체에 자연 재료와 인공 재료로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재료의 제한이 없어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소재를 오브제로 사용한 기법은 패션쇼 등에서 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컬렉션이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컬렉션에서도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속눈썹에 깃털을 붙여 과장 된 느낌을 표현하면서 전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었다. 얼굴에서 표현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오브제로 여러 재료를 사용해 표현하는 방법에는 광범위하다. 깃털과 스톤을 함께 사용해 화려하게 연출 하였다.(그림 13,14)

### (4) UV 발광효과 기법

UV 발광물감 표현기법은 야광물질을 위에 묻혀 UV라이트 조명을 사용하

95) 강민정(2006), 앞의책, p.17.

96) 오인영 외(2010), 「Art Make up Design」, 훈민사, p.33.

여 투명체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UV 발광물감 표현기법은 UV 라이트 조명 아래에서만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하며 일반 수성 바디 페인팅 물감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sup>97)</sup> 일반 물감을 하고 난 후 그 위에 UV 발광 물감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 수성 물감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겹쳐 사용하게 되면 발광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sup>98)</sup>

UV 발광 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의 작품은 다른 바디 페인팅 작품보다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린 작품은 무대공연이나 쇼 연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99)</sup>

---

97) 정연자(2009),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하이브리드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98) 강민정(2006), 앞의책, p.16.

99)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4.



<그림 10> 회화적 기법

(출처: [blog.naver.com/tksqksgkh46?Redirect=Log&logNo=130118654693](http://blog.naver.com/tksqksgkh46?Redirect=Log&logNo=130118654693),  
검색일자: 2013.03.20.)



<그림 11> 에어브러시 기법 1

(출처: [blog.naver.com/creampoodle/10111062151](http://blog.naver.com/creampoodle/10111062151), 검색일자: 2013.04.20.)



<그림 12> 에어브러시 기법 2

(출처: [cafe.naver.com/russiabodyart/91](http://cafe.naver.com/russiabodyart/91), 검색일자: 2013.04.03.)



<그림 13> 오브제 기법 1  
 (출처: [cafe.naver.com/dodoacademycafe/1518](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518), 검색일자: 2013.04.20.)



<그림 14> 오브제 기법 2  
 (출처: [blog.naver.com/mbc\\_1005?Redirect=Log&logNo=60151702675](http://blog.naver.com/mbc_1005?Redirect=Log&logNo=60151702675), 검색일자: 2013.03.28.)



<그림 15> UV 발광 효과 기법 1  
 (출처: [blog.naver.com/ohnoooo?Redirect=Log&logNo=60002000728](http://blog.naver.com/ohnoooo?Redirect=Log&logNo=60002000728), 검색일자: 2013.03.29.)



<그림 16> UV 발광 효과 기법 2  
 (출처: [blog.naver.com/flower4564?Redirect=Log&logNo=110134050638](http://blog.naver.com/flower4564?Redirect=Log&logNo=110134050638), 검색일자: 2013.03.29.)

### Ⅲ. 탈현상

현상이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외적 사실을 뜻하며,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서는 이를 배후에 있는 참된 실재 및 본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참인 실재는 감각적 인식보다 고차적인 이성적 인식으로 포착될 수 있다.”고 했다.<sup>100)</sup>

탈현상은 텍스트를 파괴하고 분석하여 특정한 구조적 범위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관계없는 것들의 상호작용이 무작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전체의 통일성을 해체시키는 것이다.<sup>101)</sup>

데리다가 추구하는 탈현상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 실재와 허구, 본질과 현상, 구상과 추상 등 이원론적인 체제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탈함으로써 절대적인 이성을 배제하고 분해와 재구성을 통해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다.<sup>102)</sup>

해체이론은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 부정 및 로고스 중심적 구조에 나타난 언어의 불안정성을 비판하면서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 재구성하는 Dis·De 탈현상을 보인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과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발전된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등의 부정적 이론은 타자성의 부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형이상학에 의해 숨겨진 타자를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에 해당한다.<sup>103)</sup>

절대성이나 총체성에 대한 자크 데리다의 이런 입장은 이항 대립이나 이분법을 거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항 대립은 파롤/랑그(parole/language), 시니피앙/시니피에(sinifiant/signifie), 객체/주체, 진리/허위, 현상/본질, 선/약, 내용/형식, 감성/이성, 육체/영혼, 공간/시간, 수동성/능동성 등 그 예를

100)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5), 「동아 새국어사전, 5판」, 두산동아, p.2542.

101) 고영은(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102) 박수진(2012), 앞의책, p.13.

103) 전영숙, 유유정(2008),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4권, 제 4호, p.1431.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sup>104)</sup>

탈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특성으로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 등으로 설명되어지며, 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혼합, 중첩, 왜곡, 단편, 우연 등이 있다.<sup>105)</sup>

결론적으로 자크 데리다의 이론은 기존의 작품과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전체를 해체함으로써 열림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다.<sup>106)</sup>

해체주의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문학비평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어야함을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107)</sup>

해체주의의 탈현상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형태를 벗어난 것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탈구성은 기존 구성방식의 파괴로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며 이는 곧 해체의 개념이기도 하다. 탈중심은 반 중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중력이라는 고전적인 규범에 대한 반발적인 표현이다.<sup>108)</sup>

불연속은 내적, 외적인 연속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그 속의 일체성을 배제시켜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한 것이며, 붕괴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되기도 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하다.<sup>109)</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현상의 표현적 특성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정리하였다.

---

104) 김옥동(1998), 앞의책, p.52.

105) 이소령(2006), 앞의책, p.52.

106) 김상효(1992),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데리다”, 한국영미어문학회지, 제 43권, p.49.

107) 위의책

108)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5권, 제 32호, pp.296-297.

109) 위의책

## 1. 탈구성

탈구성은 텍스트를 파괴, 분해, 분석하여 어떤 구조적 범위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관계없는 것 사이의 상호관계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통일성, 전체성을 파괴하는 해체의 개념이다.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 보다는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sup>110)</sup>

탈구성은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파편화 시켜 전체성을 거부,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을 말하며, 주로 형태의 분해 또는 삭제를 통한 구성의 해체적 측면을 의미한다.<sup>111)</sup>

또한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여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탈구성이란 분석적 방법을 통해 상호관계를 성취하기 보다는 거로 관계없는 텍스트를 이용해 무작위적인 상호관계를 이룬다. 즉, 단순한 변형 과정이 아닌 외적 해체 과정에서 출발한 변형의 이탈과정을 겪으며, 통일성과 전체성의 개념을 부정한다.<sup>112)</sup>

탈구성은 제 3세계로 여성 등이 비주류문화 혹은 하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텍스트를 분해, 분석하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의 역을 취하고 있다.<sup>113)</sup>

탈구성의 표현적 특성으로는 파괴, 분해, 왜곡, 과장, 삭제,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 변형 등이 있다.

<그림 17>은 탈구성의 분해를 응용한 디자인 패턴으로 한 마리의 공작새를 표현한 바디페인팅 작품이다. 공작새 깃털의 모양을 확대하였을 때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며, 깃털의 색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을 포인트로 하늘색과 파란색을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멋있할 수 있는 부분을 주황색으로 포인트

---

110) 임광숙(1997), 앞의책, p.82.

111) 조주연(2006),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작품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112) 위의책

113) 박수진(2012), 앞의책, p.13.

를 주어 마지막 테두리는 초록색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공작새만의 화려한 색상을 바디페인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18>은 여성의 몸에 눈의 형태를 균일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작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크게 그린 작품으로 탈구성의 과장을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똑같은 눈의 크기를 과장해 표현함으로써 포인트를 주고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표현한 바디페인팅이다. 똑같은 형태라도 크기에 따라 표현하는 느낌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9>는 Chanel 2013 S/S컬렉션에서 연출한 헤어스타일이다. 헤어를 포니테일로 묶어주고 윗부분의 머리를 비대칭하게 잘라 기존의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서로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과감하게 두 개의 헤어스타일을 하나로 합치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주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20>은 John Galliano의 패션쇼에서 연출한 헤어스타일이다. 머리의 묶는 형태가 한쪽은 올라가 있고, 반대편의 헤어스타일은 밑으로 내려 연출한 헤어스타일로 탈구성의 불균형을 응용한 헤어스타일로 볼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도 눈썹의 형태를 얇고 불균형적이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느낌이 균형과는 반대되는 형태의 스타일로 연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7> 공작  
 (출처: chinamakeup.egloos.com,  
 검색일자: 2013.04.29.)



<그림 18> 눈  
 (출처: blog.daum.net/2454422/517,  
 검색일자: 2013.04.29.)



<그림 19> CHANEL 패션쇼  
 (출처: blog.naver.com/ekwjddlt/  
 100167845369, 검색일자: 2013.04.  
 18.)



<그림 20> John galliano 패션쇼  
 (출처: blog.naver.com/ekwjddlt/100  
 169262669, 검색일자: 2013.04.18.)

## 2. 탈중심

탈중심이란 이분법적 가치 구분에서 중심으로 여겨진 개념과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개념으로 평가 절하되었던 타자성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항대립의 공존이라는 절충성과 이로 인해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해체성으로 설명된다. 즉 이항대립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온 성, 계급, 인종, 문화, 미에 관한 개념들이 형이상학적 관점의 중앙을 벗어나 주변 개념과 섞임으로써 제 3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함을 의미한다.<sup>114)</sup>

비구조적인 표현 기법은 중심의 부재, 공간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분류한 것이다.<sup>115)</sup>

탈중심화는 ‘원리들로부터의 사유’를 주장하는 형이상학의 인식적 지배체제인 불변의 진리와 기초, 규칙 등을 수용하는 중심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sup>116)</sup>

탈중심의 논리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었던 것, 주변적이거나 사소한 것, 타자에 대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60년대 이후 특수한 개성 추구가 주된 역할이 되자 비서구의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비주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하여 하찮은 것, 일상적인 것, 과거에는 추하다고 여겨 소외된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창조하는 것이다.<sup>117)</sup>

탈중심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고, 의식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여 소외를 미적으로 극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기존 가치와 양식을 붕괴, 해체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탈 중심화 된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sup>118)</sup>

---

114) 변영희(2010), 앞의책, p.97.

115) 윤숙원(2010), 앞의책, p.60.

116) Manfred Frank, 김상윤(역)(1998),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사랑, p.50.

117) 김성아(2008), “ Paris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주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118) 김선아(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슈즈디자인의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 8권, 제 1호, p.142.

복식과 건축에서 나타난 붕괴와 해체를 아트메이크업에 표현하였다.

<그림 21>는 메이크업의 기본 형식을 붕괴하고 눈썹모양과 입술의 색의 표현을 한 가지 색이 아닌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과감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눈썹의 모양도 원래의 눈썹을 지우고 눈썹 뼈를 중심으로 굴곡이 심하게 지어진 느낌으로 표현하였으며, 입술의 색도 반을 나누어 색을 다르게 바른 형태로 탈중심의 붕괴를 응용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는 복식과 건축에서 나타난 탈중심의 해체 방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바디에 꽃의 모양을 표현하여 각각 몸에 해체시켜 표현하였으며, 결국은 하나의 꽃 모양을 표현한 작품이다. 모델이 포즈를 할 때 마다 꽃의 모양도 바뀔 수 있게 각각 다른 부위에 표현하여 해체 시켰지만 하나의 꽃 모양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21> Eyeshadow and lipsticks  
(출처: [blog.naver.com/at0821/40161823062](http://blog.naver.com/at0821/40161823062), 검색일자: 2013.04.18.)



<그림 22> 신기한 바디페인팅  
(출처: [blog.naver.com/jyt0108/100169498108](http://blog.naver.com/jyt0108/100169498108), 검색일자: 2013.04.18.)

### 3. 불연속

전통적 디자인에서는 일전에 구축해왔던 이미지로부터 연속적인 전개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틀’로서 설명되며, 틀은 행위와 시간이 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규정하고 시간의 개념 속에 대표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은 형태적인 조작을 통해 동질적인 틀의 혼합, 중첩, 왜곡, 용해, 반복, 우연, 삽입으로 분류되어진다.<sup>119)</sup>

메이크업에서의 불연속이란 적절한 도구나 재료에 따른 얼굴 표현을 무시하고, 얼굴 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부조화를 유도, 시선의 연속적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0)</sup>

예를 들어 얼굴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동떨어진 엉뚱한 형태나 색상, 질감을 적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조형요소를 가미하는 등 내적 불연속을 유도한다.

또한 메이크업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질 소재를 얼굴에 직접 첨가한 키치, 플라쥬 등의 전위적 표현은 뷰티메이크업으로써의 기능을 초월해 메이크업으로서의 전통적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성을 보여준다.<sup>121)</sup>

<그림 23>은 3명의 여성을 배경과 어울리게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불연속의 중첩 디자인으로 여러 색과 형태가 겹쳐지게 표현하여 배경에 있는 정원에 핀 꽃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러 색을 이용하여 표현방법에서 겹칠 수 있지만, 중첩되는 색이 표현할 수 있는 꽃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중첩의 디자인은 겹쳐지게 하여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지만 <그림 24>은 동물의 상징적인 무늬를 응용해서 불연속의 반복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동물의 무늬의 특징인 점의 형태를 모델의 바디에 반복하여 표현하였고, 모델의 얼굴에 동물의 특유한 표정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모델의 바디에는 동물의 상징적인 무늬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

119) 김주현 외(1999), 앞의책, pp.19-20.

120) 변영희(2010), 앞의책, p.97.

121) 위의책

복을 시켜 표현한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5>에서는 여성의 바디에 물결을 전체적으로 하늘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여성의 몸에 수도꼭지를 붙여 좀 더 3차원적인 표현한 작품이다. 불연속에서 삼입을 응용하여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파란색의 계열을 여러 색을 섞어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 진다.

<그림 26>는 불연속의 왜곡을 표현한 작품으로써 각 모델에게 같은 느낌이지만 서로 다른 선과 악의 모습을 각자 모델에게 표현한 바디 페인팅 작품이다. 흰색과 빨간색을 응용해 선과 악의 모습을 왜곡하여 표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왜곡된 모습이지만 서로 어울리게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 진다.



<그림 23> 정원  
 (출처: [blog.naver.com/dgz\\_sarang/40099756120](http://blog.naver.com/dgz_sarang/40099756120), 검색일자: 2013.04.18.)



<그림 24> 동물  
 (출처: [cafe.naver.com/gyeryongalpin/3412](http://cafe.naver.com/gyeryongalpin/3412), 검색일자: 2013.04.18.)



<그림 25> 수도  
 (출처: [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3NDO&categoryid=230656#ajax\\_history\\_home](http://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3NDO&categoryid=230656#ajax_history_home), 검색일자: 2013.06.09.)



<그림 26> 선과 악  
 (출처: [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3NDO&imgurl](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3NDO&imgurl), 검색일자: 2013.06.09.)

#### 4. 분열과 붕괴

분열과 붕괴는 찢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한 디자인 양식이다. 의상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찢어버려 과도한 노출 및 옷의 형태를 변형하는 사례로서 벨트가 있어야 할 부분에 일부러 구멍을 크게 내어 안에 착용한 벨트가 보이게 하거나 옷이 찢개져 보이도록 일부러 슬래시를 심하게 주어 퇴폐적미의식을 드러내는 디자인 사례 등을 분열·붕괴의 양식에 적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sup>122)</sup>

해체주의 디자인 특성인 분열, 붕괴는 의도적인 파괴행위를 보이고 있다. 메이크업의 특성으로는 눈썹을 감추어 소멸함으로써 본질에 대한 파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sup>123)</sup>

<그림 27>은 하늘과 바다 속에 느낌을 바디페인팅의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결되는 하나의 느낌의 작품을 여자 모델의 각각 바디에 분열시켜 디자인한 작품으로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연결되지만 결국은 따로 분열을 시킨 디자인 작품이다. 바다 속의 땅을 갈라진 느낌으로 분열시켜 표현하였으며, 분열과 붕괴 중 분열에 더 적합하게 표현한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28>은 형태가 붕괴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부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복식에서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찢는 표현의 방법을 모티브로 바디페인팅에 표현한 작품이다.

여성과 남성의 바디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붕괴의 모습을 각각 표현하였으며, 복식에서는 구멍을 내거나 찢는 표현이지만 바디페인팅에서는 갈라져 구멍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는 3명의 모델에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곤충의 모습을 각각의 모델에게 기본 작업을 통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분열

122) 김선아(2008), 앞의책, p.142.

123) 김지연(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제 21권, p.50.

을 시켜 전체적인 느낌을 완성한 하나의 작품이다. 모델의 포즈에 따라 가운데 있는 모델에게는 볼드캡을 씌어 머리까지 바디 페인팅을 표현하였다.

<그림 30>에서는 붕괴의 형태를 응용한 작품으로 모델의 바디에 색을 입히는 방법을 하지 않고 석고를 재료로 사용하여 점차 말라가면서 형태가 붕괴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붕괴되어가는 작품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7> 하늘과 바다  
 (출처: [blog.naver.com/wjssir29/120159819366](http://blog.naver.com/wjssir29/120159819366), 검색일자: 2013.04.18.)



<그림 28> 붕괴  
 (출처: [blog.daum.net/flanoart/14041810](http://blog.daum.net/flanoart/14041810), 검색일자: 2013.04.18.)



<그림 29> 곤충  
 (출처: [blog.daum.net/ekfqicanwlo/6539702](http://blog.daum.net/ekfqicanwlo/6539702), 검색일자: 2013.06.09.)



<그림 30> 석고 페인팅  
 (출처: [blog.daum.net/pahkhw/13421476](http://blog.daum.net/pahkhw/13421476), 검색일자: 2013.06.09.)

본 연구에서는 탈현상의 표현적 특성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탈구성에서는 삭제, 과장으로 구분하였고, 탈중심은 붕괴, 해체, 불연속은 중첩, 혼합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열과 붕괴는 쪼개기와 어떤 형태를 부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총 8점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8점의 표현적 특성을 선정하여 단청문양의 기하문, 길상문, 식물문, 자연문을 활용한 바디아트를 작품제작 하고자 한다.

## IV. 작품 제작

### 1. 제작의도

본 연구는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으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불확정성으로 총 4가지로 분류하였고, 해체주의 중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정리하여 단청의 기본문양을 접목시켜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한다. 단청문양을 기하문, 길상문, 식물문, 자연문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탈구성을 삭제, 과장으로 구분하고, 탈중심을 붕괴, 해체로 구분하였으며, 불연속을 중첩, 혼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열과 붕괴를 쪼개기와 부수기로 구분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탈현상을 총 8점의 작품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전통문양과 색채에 접목시켜 마디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은 탈구성의 삭제를 단청문양인 기하문의 장침을 선정하여 기존의 형태를 삭제시켜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탈구성의 과장을 응용하여 단청문양의 길상문인 복(福)을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탈중심의 붕괴를 단청문양의 기하문인 태극무늬에 접목시켜 기존의 오방간색을 응용하여 색을 표현하고 태극무늬의 굴곡을 거칠게 표현하고자 석고를 오브제화 하여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탈중심의 해체를 식물문의 모란무늬로 제작하여 모란의 잎을 해체시켜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는 불연속의 중첩을 선정하여 기하문의 삼각형 모양을 각각 다른 크기로 잘라 오브제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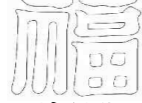

작품 VI은 불연속의 혼합으로 길상문의 복(福)을 사슴의 뿔과 사람의 형태로 나누어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II은 분열의 형태로 식물문 중 연꽃무늬에 응용하여 형태를 쪼개어 페인팅 기법으로 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VIII은 붕괴의 부수는 방법을 응용하여 자연문 중 파도무늬를 접목시켜 에어브러시 기법과 오브제의 기법을 사용해 작품 제작하였다.

디자인 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서

구분 분류	단청 기본문양	분류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사용된 색채
탈구성	 장침	삭제		
	 복(福)	과장		
탈중심	 태극무늬	붕괴		
	 모란무늬	해체		
불연속	 삼각형	중첩		
	 복(福)	혼합		
분열과붕괴	 연꽃무늬	분열		

## 2. 작품제작

### 1) 작품 I

#### (1) 디자인 의도

작품 I 은 탈구성을 삭제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기하문 중 장침을 응용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장침은 추상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기하문의 하위분류에 속하지는 않는다. 장침의 문양을 원래의 형태가 아닌 삭제를 시켜 좀 더 추상적인 무늬를 표현하고자 한다.

오방색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그 중 검정색으로 깔끔하면서도 장침의 형태가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또렷하게 표현하고자 장침의 형태를 직선만 사용해서 디자인하지 않고 곡선의 느낌을 사용해 굴곡을 표현하고 바디페인팅 기법 중 페인팅 기법으로 그려주었다.

#### (2) 제작 방법

작품 I 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바디의 톤을 원래의 톤보다 한 톤 정도 밝게 크림 파운데이션과 약간의 라이닝 컬러를 사용하여 피부 톤을 정리 한다.

둘째, 밝아진 바디의 몸에 밝은 색의 파우더로 마무리 한다.

셋째, 흰색 라이너펜슬로 바디에 밑그림을 그린다.

넷째, 유성제품의 검정색 라이닝 컬러로 색을 표현하였다.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3>과 같다.

<표 3>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탈현상의 분류	탈구성(삭제)
단청 기본문양의 분류	기하문 - 장침
재료	크림파운데이션, 파우더, 유성 라이닝 컬러, 흰색 라이너 펜슬



<그림 31> 작품 I

## 2) 작품 II

### (1) 디자인 의도

작품 II는 탈구성을 과장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길상문 중 복(福)을 응용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예로부터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줄 때 쓰는 복(福)을 중심으로 작품 디자인을 하였으며, 탈구성의 과장을 응용해 표현하였다. 복(福)의 글자 모양이 사슴뿔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복(福)을 획으로 나누어 각각에 과장된 형태로 모델 바디에 디자인하여 작품을 하고 바디페인팅 기법 중 페인팅 기법으로 복(福)의 형태를 브러시로 그려주었다.

### (2) 제작 방법

작품 II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바디의 톤을 원래의 톤과 맞추어 피부 톤을 정리하였다.


둘째, 흰색 라이너펜슬로 바디에 밑그림을 그려준다.

셋째, 유성제품의 라이닝 컬러 중 검정색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넷째, 검은 부분에 흰색을 사용해 밝은 부분을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표 4> 작품 II - 사용된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탈구성(과장)</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길상문 - 복</p>
<p>재료</p>	<p>유성 라이닝 컬러, 흰색 라이너 펜슬</p>



<그림 32> 작품 Ⅱ

### 3) 작품 III

#### (1) 디자인 의도

작품 III은 탈중심을 붕괴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기하문 중 태극무늬를 응용한 작품이다.

한국 전통문양 중에 하나인 태극무늬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족의 사상과 정서에 기점을 두고 있는 문양 중에 하나이다.

태극무늬의 색상에서는 붉은 색은 양을 뜻하며, 푸른색은 음을 뜻하고 있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담겨있는 전통무늬 이다. 이 작품에서는 한국 전통의 오방간색을 응용하여 태극무늬의 굴곡을 새롭게 표현하고 바디페인팅 기법 중 오브제 형태를 응용하여 석고를 몸에 붙여 굳은 뒤 에어브러시로 색을 입혀 표현 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III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바디에 먼저 에어브러시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바탕을 칠해 주었다.

둘째, 석고가루를 물과 섞어 너무 묽지 않게 농도를 조절하여 모델 바디에 발라 준다.

셋째, 석고가루가 마르고 나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당기지 않는다.

넷째, 갈라진 부분과 떨어진 부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다섯 째,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부족한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여 마무리 한다.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탈중심(붕괴)</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기하문 - 태극무늬</p>
<p>재료</p>	<p>에어브러시, 물감, 석고가루, 물</p>



<그림 33> 작품 Ⅲ

#### 4) 작품 IV

##### (1) 디자인 의도

작품 IV는 탈중심을 해체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식물문 중 모란무늬를 응용한 작품이다.

모란무늬는 꽃 중에 왕이라고도 하며 풍성한 꽃잎은 부귀를 상징하며, 길상화로서 부귀화라고도 불린다. 모란꽃은 번창과 행복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모란꽃은 장미, 또는 여러 꽃들 사이에 많이 혼합되어 자수나 공예품에도 많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모란무늬는 다른 도안과는 달리 풍성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회화적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란의 잎을 해체시켜 나뉜 잎 부분에 전통문양과 색감을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IV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바디에 흰색 라이닝 펜슬로 디자인을 해준다.

둘째, 디자인 된 부분을 배경을 수성제품의 라이닝 컬러로 표현한다.

셋째, 배경을 칠한 부분이 말랐을 때 다시 디자인하려고 한 패턴을 그려준다.

넷째, 전체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헤어에 오방색을 반영한 천을 연출하여준다.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6>과 같다.

<표 6>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탈중심(해체)</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식물문 - 모란무늬</p>
<p>재료</p>	<p>수성 라이닝 컬러, 흰색 라이너 펜슬, 천</p>



<그림 34> 작품 IV

## 5) 작품 V

### (1) 디자인 의도

작품 V는 불연속을 중첩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기하문 중 삼각형 무늬를 응용한 작품이다.

기하문에는 직선, 사선, 원, 사각형, 삼각형 등 많은 문양으로 나누어지며, 기하문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형태이다.

인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습과 태양의 동그란 형태를 보고 그렸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 중 삼각형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불연속에서 설명되었던 중첩을 셀로판지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크기와 전통색채의 오방색으로 오브제 기법을 응용해 작품 표현에 사용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로판지의 색상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크기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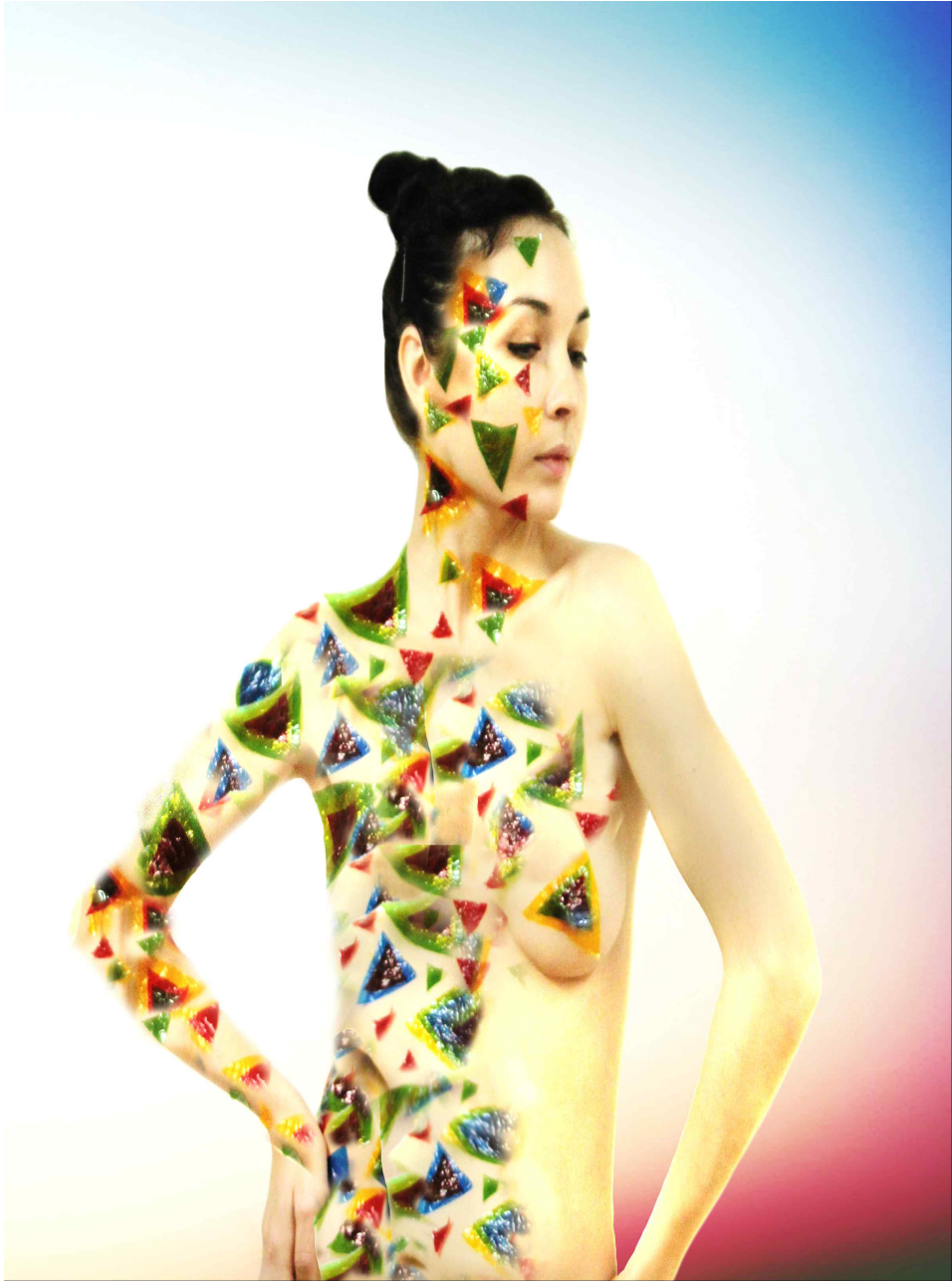
둘째, 다른 크기의 셀로판지를 서로 겹쳐서 제작한다.

셋째, 입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제작한 셀로판지를 모델의 바디에 서로 겹쳐지게 붙인다.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7>와 같다.

<표 7> 작품 V - 사용된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불연속(중첩)</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기하문 - 삼각형</p>
<p>재료</p>	<p>셀로판지, 폴, 라텍스</p>



<그림 35> 작품 V

## 6) 작품 VI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은 불연속을 혼합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길상문 중 복(福)을 응용한 작품이다.

길상문 중 복(福)은 장수나 행복 등 좋은 일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는 불연속의 혼합을 응용해 사람과 태양의 모습을 길상문의 복(福)에 작품을 표현하고자 한다.

사람의 형태와 태양의 모습, 새를 선명하게 표현하고자 색상선택은 검정색만을 사용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VI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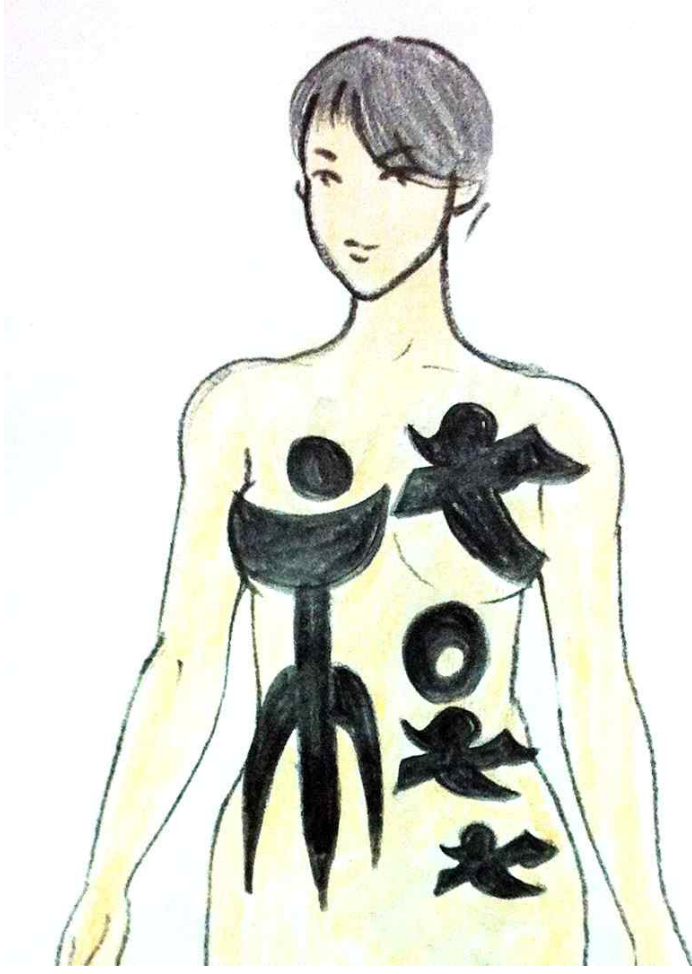
첫째, 모델의 바디색상을 흰색으로 먼저 칠해준다.

둘째, 몸에 혼합된 복(福)을 그려주고, 전체적으로 에어브러시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준다.

셋째, 밑 부분은 검정색으로 에어브러시를 뿌려 점차적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을 표현하여 준다.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8>와 같다.

<표 8>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불연속(혼합)</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길상문 - 복(福)</p>
<p>재료</p>	<p>유성 라이닝 컬러, 흰색 라이닝 펜슬, 에어브러시</p>



<그림 36> 작품 VI

## 7) 작품 VII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은 분열과 붕괴를 쪼개기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식물문 중 연꽃무늬를 응용한 작품이다.

연꽃무늬는 불교의 사용되어지는 여러 물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단청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이다. 연꽃무늬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물건의 무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꽃이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꽃과 열매가 같이 피어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 연꽃의 의미가 생명의 창조와 번식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분열의 쪼개기를 응용하여 연꽃을 디자인하고 너무 동떨어진 느낌을 보완하기 위해 모델 바디의 연결성을 주어 작품을 표현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VII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바디에 흰색 라이닝 펜슬로 연꽃을 쪼개어 디자인한다.

둘째, 연꽃의 옅은 오방간색의 색상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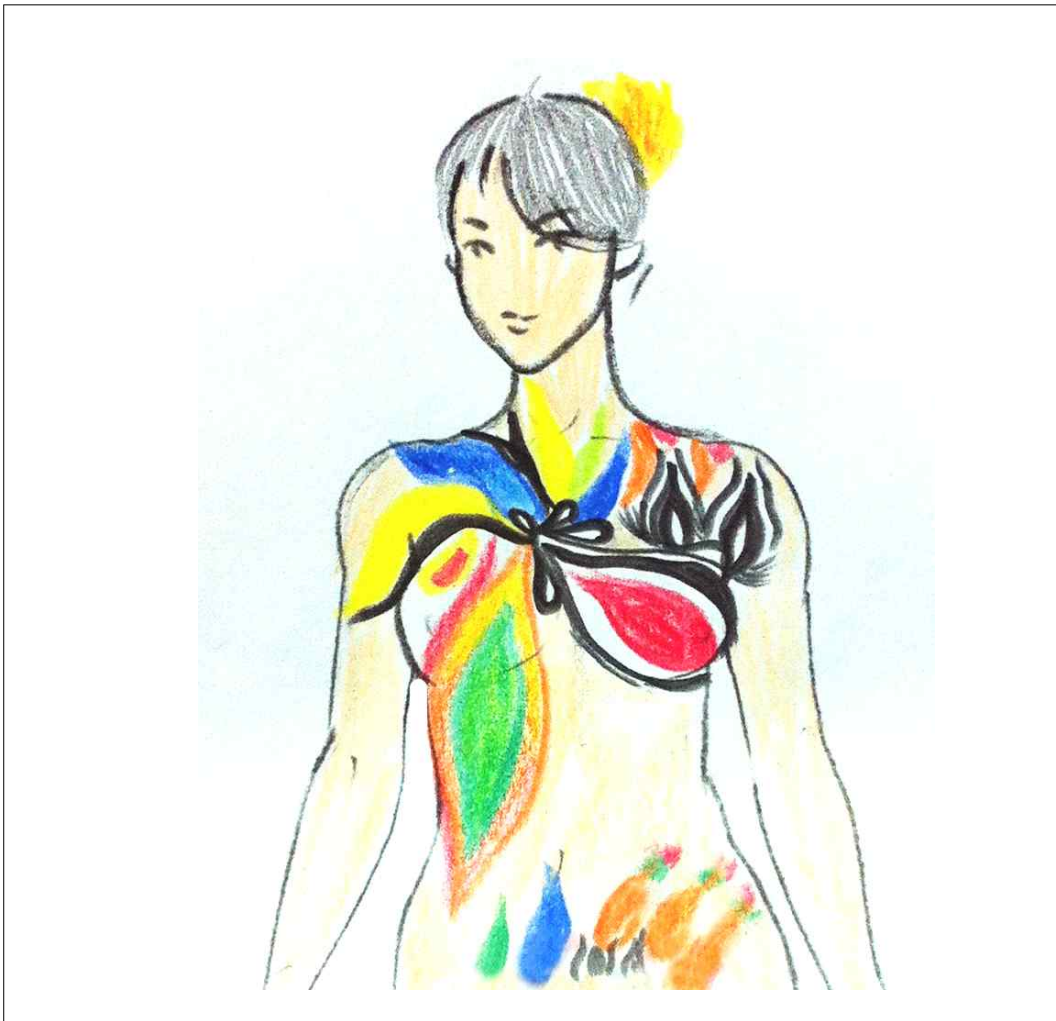
셋째, 비슷한 색상으로 연꽃을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넷째, 쪼개어진 부분을 검정색 수성 라이닝 컬러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다섯째, 전체적인 느낌의 연결성을 주어 머리에 천을 응용하여 연출한다.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9>와 같다.

<표 9> 작품 VII - 디자인 이미지



탈현상의 분류	분열과 붕괴(조개기)
단청 기본문양의 분류	식물문 - 연꽃무늬
재료	유성 라이닝 컬러, 수성 라이닝 컬러, 흰색 라이닝 펜슬, 천



<그림 37> 작품 VII

## 8) 작품 VIII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I은 분열과 붕괴를 부수기에 응용하여 단청 기본문양의 자연문 중 과도무늬를 응용한 작품이다.

과도의 물결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 바디와 얼굴, 머리카락 부분까지 석고가루와 석고 붓대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과도의 모습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과도가 치고 난 뒤 물결이 남아있는 모습을 석고가루에 물을 많이 희석해 자연스럽게 뿌려주었다.

과도의 색상을 오방색의 색상 중 청색으로 선택하여 그라데이션 시켜 표현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VIII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고가루를 너무 묽지 않게 물과 섞어 준비한다.

둘째, 석고가루가 굳기 전에 모델 바디에 과도 무늬를 표현한다.

셋째, 과도의 느낌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석고가루와 석고 붓대로 덧발라 표현한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서지는 부분을 강압적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청색의 계열로 옅은 색부터 짙은 색까지 에어브러시로 표현한다.

여섯째, 석고 가루에 물을 많이 섞어 물게 만든 후 전체적으로 뿌려주며 과도가 치고 난 뒤의 모습을 표현한다.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작품 VIII - 디자인 이미지

	
<p>탈현상의 분류</p>	<p>분열과 붕괴(부수기)</p>
<p>단청 기본문양의 분류</p>	<p>자연문 - 과도무늬</p>
<p>재료</p>	<p>석고가루, 석고붕대, 에어브러시, 물감</p>



<그림 38> 작품 VIII

## V. 결 론

오늘날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형태를 파괴, 해체하고 창조적이고 자기만의 개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체주의적 표현이 접목되면서 여러 미용분야에서 또한 해체주의가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해체주의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를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불확정성으로 분류하고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과 색채를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해체주의적 특징이 잘 들어난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국내·외의 전문서적과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으며, 전통문양과 색채를 해체주의 탈현상에 응용하여 바디페인팅으로 작품화 하여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 탈구성의 삭제를 기하문 중에 장침을 응용한 작품으로 추상적인 장침의 디자인을 삭제시켜 직선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곡선을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작품 II - 탈구성의 과장을 통하여 길상문의 복(福)을 응용한 작품으로 한문의 획을 하나씩 나누어 과장시켜 디자인 하였다.

작품 III - 탈중심의 붕괴를 응용해 태극무늬를 디자인한 작품으로 태극무늬는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에 기점을 두는 문양으로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문양이다. 붕괴된 느낌을 표현하고자 석고가루를 사용하여 거친 느낌을 표현하였고,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여 오방간색을 표현하였다.

작품 IV - 탈중심의 해체를 이용한 작품으로 꽃 중의 왕이라는 모란무늬를 중심으로 잎의 해체시켜 디자인하고 그 안에 모란무늬를 다시 표현하였다.

풍성한 꽃잎에 번창과 행복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잎을 해체시켜 디자인 하

였다.

작품 V - 불연속의 중첩을 응용하여 셀로판지를 각자 다른 크기로 제작하여 오방색의 색채를 겹쳐지게 만들고 이것을 다시 또 한번 서로 겹쳐 중첩의 느낌을 주었다.

작품 VI - 길상문의 복(福)으로 사람형태와 태양의 모습, 새를 반영하여 서로 문양이 혼합된 것으로 자연과 어울어져 있는 복(福)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 - 분열과 붕괴 중 분열에 쪼개기를 적용하여 잎이 많을수록 생명의 창조와 번식을 뜻하는 연꽃무늬에 디자인 하였다.

작품 VIII - 부서지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석고가루와 석고붕대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덧칠을 하고 마르고 난 뒤 에어브러시로 과도도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과도가 치고 난 뒤 물이 튀긴 부분을 표현할 때는 석고가루와 물을 물게 섞어 뿌려 특징을 살려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하여 단청문양을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면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였던 것을 새로운 형태의 문양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체주의 중에서 가장 해체적 성향이 강한 탈현상을 선택하여 단청문양에 접목시켜 디자인하면서 잊혀져만 가는 우리의 전통문양과 색채를 이용해서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대영(1999),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 강민정(2006),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 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대웅(1997), 「디자인·공예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곽동해(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 권진영(2010), “패션 트렌드 컬러와 해체주의 패션 컬러의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인(2007),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3권, 제 2호
- 김공몽(1991), 「Airbrush Illustrations」, 조형사
- 김동욱(1991),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 김민수(1994), 「모던 디자인의 비평」, 안그래픽스
- 김민진(2005),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호(1992),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데리다”, 한국영미어문학회지, 제 43권
- 김선아(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슈즈디자인의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 8권, 제 1호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제 18권, 제 1호
- 김성아(2008), “Paris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주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은 외(2009), 「ART MAKE UP」, 광문각
- 김영희(2001), 「토탈 메이크업」, 정문각
- 김옥동(1998), 「전환기의 비평논리」, 현암사
- 김원갑(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1990),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외(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5권, 제 32호
- 김지연(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제 21권
- 김향리(2003), “전통 문양을 이용한 표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2012), 「한국 단청의 이해」, 한티미디어
- 노미정(2005), “해체주의적 의상이 영화 속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5), 「동아 새국어사전, 5판」, 두산동아
- 두산세계백과사전연구소(1996), 두산세계백과사전
- 마단 사립, 인현규(역)(1991),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 인간사랑
- 문정은(2002),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선(2008), “한국사찰단청 머리초양식에 관한 연구 - 17, 18세기 지역별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영 외(2002), 「Make-up Art」, 청구문화사
- 박수진(2012),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희(2001), “전통정신사상과 복식색의 치료효과와의 연관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연주(1994), “매니쉬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12), “에드바르트 뭉크의 회화적 모티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한언
- 방수진(2007), “자크데리다 해체주의적 개념에 의한 현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3권, 제 3호
- 방수진(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선(2006),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권(2004), “텍스트 해석을 통한 후기모더니즘 미술의 비평적 접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인영 외(2010), 「Art Make up Design」, 훈민사
-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재은(2006),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 철학적 의미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 이소령(2006), “현대 데님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인(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 주의적 표현 양식”,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6호
- 이영애 외(2000),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나(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무(1993), “해체건축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동(1990), “테리다와 해체주의”, 서강영문학, 2권
- 임광숙(1997),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주(1991), 「단청」, 대원사
- 임영주, 전한호(2007), 「우리나라단청 I」, 태학원
- 전영숙, 유유정(2008),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14권, 제 4호
- 정연자(2009),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하이브리드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영(2009), “테리다의 차연적 관점에서 본 해체주의 건축의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희, 서경희(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산업기술연구원
- 조주연(2006),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작품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송하(2006), “전통 문양을 응용한 생활한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희(2008),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색채학회논문집, 제 22권, 제 1호
- 추신영(2007), “단청문양을 활용한 전통미술지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 하경호(1992), “신체예술과 그 개념의 확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 한명숙(2001), 「마귀아쥬예술」, 청구문화사
- 한석성(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단청」, 현암사
- 허균(2007), 「전통문양」, 대원사
- Christopher Norris & Andrew Benjamin, 오덕조(역)(1996), 「“What is Deconstruction?”」, 청람출판사
- Jacques Derrida, 김보현(역)(1996), 「해체」, 문예출판사
- John Lewelyn, 서우식·김세중(역)(1988),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 Manfred Frank, 김상윤(역)(1998),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사랑
- Penelope Deutscher, 변성찬(역)(2006), 「How to read Derrida」, 웅진지식하우스
- Peter Noever, 오덕조(역)(1996), 「Architecture in Transition」, 청람출판사

## 국외 문헌

Encarta World English Dictionary [North American Edition] © & (P)  
200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for  
Microsoft by Bloomsbry Publishing Plc.

Grimas (1992), 「make up voor professional en hohhy」, Stichting Grimas.

John Ligget (1974), 「The human face」, New york: Stein and Day.

## 인터넷 자료

<http://blog.daum.net/2454422/517> (검색일자: 2013.04.29.)

<http://blog.daum.net/ekfqlcanwlro/6539702> (검색일자: 2013.06.09.)

<http://blog.daum.net/flanoart/14041810>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me/100172800809>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at0821/40161823062>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creampoodle/10111062151> (검색일자: 2013.04.20.)

[http://blog.naver.com/dgz\\_sarang/40099756120](http://blog.naver.com/dgz_sarang/40099756120)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ekwjddlt/100167845369>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ekwjddlt/100169262669>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flower4564?Redirect=Log&logNo=110134050638>  
(검색일자: 2013.03.29.)

<http://blog.naver.com/jyt0108/100169498108> (검색일자: 2013.04.18.)

[http://blog.naver.com/mbc\\_1005?Redirect=Log&logNo=60151702675](http://blog.naver.com/mbc_1005?Redirect=Log&logNo=60151702675)  
(검색일자: 2013.03.28.)

<http://blog.naver.com/ohnoooo?Redirect=Log&logNo=60002000728>  
(검색일자: 2013.03.29.)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3NDO&imgurl](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3NDO&imgurl)

(검색일자: 2013.06.09.)

[http://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3NDO&categoryid=230656#jax\\_history\\_home](http://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3NDO&categoryid=230656#jax_history_home)

(검색일자: 2013.06.09.)

<http://blog.naver.com/tjsgud1112/140102029263> (검색일자: 2013.04.29.)

<http://blog.naver.com/tksqksgkhk46?Redirect=Log&logNo=130118654693>

(검색일자: 2013.03.20.)

<http://blog.naver.com/wjssir29/120159819366> (검색일자: 2013.04.18.)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518> (검색일자: 2013.04.20.)

<http://cafe.naver.com/gyeryongalpin/3412> (검색일자: 2013.04.18.)

<http://cafe.naver.com/russiabodyart/91> (검색일자: 2013.04.03.)

<http://chinamakeup.egloos.com> (검색일자: 2013.04.29.)

<http://www.google.co.kr> (검색일자: 2013.06.09.)

# ABSTRACT

## A Study on Body Art by the Application of Deconstructive Deviation

- With a focus on the Dancheong patterns -

**KIM, Hye Yeon**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School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today, people have easier and faster access to information thanks to the universal spread of all kinds of information media and the Internet.

As the times develop, people get to pursue designs that reflect their own individuality or designs with differentiation.

Being spread at an alarming rate through various information media, many different fields of beauty including architecture, art, clothes and makeup, and body painting have achieved a lot of growth and development with the methods of aesthetic expression being expanded in various directions.

As people have a stronger desire to pursue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aesthetic expressions, they seek after original expressive methods of form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form to express themselves and adopt new styles by dismantling or rejecting the existing ones they are exposed to every day.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deconstructivism and categorized the deconstructivism features by Jacques Derrida into difference, intertextuality, undecidability, and deviation, which was further divided into decomposition, decentralization, discontinuance, and disruption and collapse. The study set out to incorporate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into deconstructive deviation by using the patterns and colors of Korean Dancheong, categorize the basic patterns of Dancheong, and make total eight pieces of body painting with its geometric, auspicious, plant, and natural patterns.

The specific content of deviation was as follows:

First, decomposition is not a simple process of transformation, goes through separation in the process of external dissolution, and denies the concepts of unity and totality. It was designed with such methods as resolution, elimination, and exaggeration in body painting and makeup and expressed in alteration, asymmetry, and imbalance in hair.

Second,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dismantles the

centralization of an entity with what is felt valueless and alienated, what is marginal and trivial, and the perceptual changes of others, thus breaking down and dissolving the old values and styles and seeking after new third-party beauty.

Third, continuance is explained with "frameworks" by doing design through a consecutive development process from the images established in the traditional designs. Discontinuance can be categorized into the mixture, overlap, distortion, resolution, repetition, coincidence and insertion of homogeneous frameworks by defin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actions and time, excluding oneness inherent in the concept of time, and manipulating the forms that have become an objet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Finally, disruption and collapse are exposed in the process of splitting or breaking and have a strong tendency toward dissolution as a style of design. They reveal the basic format of deviation most prominently by intentionally splitting or breaking forms.

The investigator created a host of pieces by integrating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and colors into deviation that manifests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ism best of the deconstructive features of Jacques Derrida.

For Piece I, the investigator set the elimination of decomposition as the long hand of geometric patterns of

Dancheong, got rid of the old forms, and applied the painting technique.

For Piece II, she applied exaggeration of decomposition and created 福, an auspicious pattern of Dancheong, with the painting technique.

For Piece III, she incorporated collapse of decomposition into the Great Absolute, a geometric pattern of Dancheong, expressed colors by applying the old Obanggan colors, and turned plaster into an objet to express the curved aspects of the Great Absolute pattern roughly.

For Piece IV, she made dissolution of decomposition with the peony pattern, a plant pattern of Dancheong, dismantled the peony petals, and applied the painting technique.

For Piece V, she picked overlapping of discontinuance, cut geometric triangular shapes in different sizes, and applied the objet technique.

For Piece VI, she created 福, an auspicious pattern of Dancheong, in the shape of the antlers and human being with mixture of discontinuance.

For Piece VII, she applied disruption to the lotus flower pattern, a plant pattern of Dancheong, split the forms, and applied the painting technique.

Finally, for Piece VIII, she applied the breaking method for collapse, incorporated the wave pattern, a natural pattern of

Dancheong, and applied the air brush and objet technique.

The investigator proposed original designs fit fo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ople rejected the old ones and pursued new ones, incorporated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and colors that were gradually being forgotten into deconstructivism, and created new designs to promote an easy understanding of them.

In future, many more researches and creations should increase people's easy access to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as well as deconstructivism and propose their developmental potential, being influenced by the public seeking after new forms. Researches on deconstructivism and traditional patterns are also needed in various fields of beauty for creative ideas and attempts.